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형

도끼로 천지를 열다[盤古開天地]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고도로 압축된 공간..... 그 속에는 반고(반고)라는 신이 갇혀 있었다. 그는 어둠이 너무도 싫었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어둠을 향해 냅다 후려쳤다. 그 순간 엄청난 폭음과 함께 꼭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반고는 재빨리 땅을 딛고 하늘을 떠받쳤다. 반고가 도끼를 휘두른 순간 우주가 ‘퐁당’하고 생긴 것이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혹시라도 다시 붙을까 두려워 그 사이에 버티고 서서 엄청난 힘으로 하늘을 밀어 올렸다. 위낙 무거웠던지 처음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고열의 인플레이션 우주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힘을 가하자 결국 하늘과 땅은 다시 붙지 못하고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빅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하늘은 하루에 일장(一丈)씩 위로 올라가고 땅은 하루에 일장씩 두터워졌다. 이렇게 하기를 1만 8천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하늘과 땅은 제 자리를 찾았는지 다시 붙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맑게 개인 우주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반고는 그제야 휴식을 취하려고 깊은 잠에 빠졌다. 하늘과 땅을 열고나서 반고는 죽었다. 아니 죽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체는 서서히 변해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 두 눈은 태양과 달로 그리고 머리카락은 수많은 별로 변했고 입김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다. 그런가하면 그의 피는 강으로 변했고 피부의 털은 땅의 초목이 되었으며 뼈는 금속이나 돌로 변했다. 심지어 그가 흘린 땀조차도 비가 되어 대지를 적셔주었다. 지금의 우리는 반고의 몸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반고의 호흡과 몸뚱이가 곧 자연 그 자체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그 자체가 신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고대의 동아시아인들은 우주 탄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부터 자연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적대시하기는커녕 자연의 축복 속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과 흙의 조화-인류의 탄생

반고를 통해서 우주는 탄생되었다. 물론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도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다. 아니 반고가 곧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런데 인류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이는 그 어느 신화보다 자연스럽다. 현대의 물리학적 계산으로도 우주의 나이는 180억년 가량이며 생명의 나이는 35억년, 그리고 인간의 나이는 길어야 200만년을 넘지 못한다니 말이다. 동아시아의 고대인들은 인류의 탄생을 위해 여와(女와)라는 신을 만들었다. 그녀는 팔괘와 문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복희의 누이동생이었다. 이들 남매는 모두 뱀의 몸뚱아리에 사람의 얼굴을 지녔다고 하는데 황하문명 발생의 젖줄이었던 강

을 상징하는 뱀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강은 생명의 원천이다. 강이 없었다면 문명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복희와 여와는 이처럼 생명을 탄생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신으로 고대 동아시아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복희도 훌륭한 능력을 지닌 신이었지만 인간을 창조한 것은 그가 아니라 여와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남자는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를 창조하는 일은 여자였던 누이동생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여와는 진흙을 빚어 인류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인류는 물가에서 탄생한 것이다. 끊임없이 진흙을 반죽하던 그녀는 단순 반복 작업에 지친 나머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새끼줄을 진흙탕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 사방으로 뿌려댔다. 그러자 새끼줄에 붙어 있던 진흙 방울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모두 사람으로 변했다. 비로소 인류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튼 인류는 여와에 의해서 물가의 진흙 속에서 탄생되었다. 이 또한 강가에서 발생한 문명의 상징적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인류가 탄생하자 하늘과 땅 사이의 주인공은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많은 독초와 독충으로 인해 인류는 항상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를 위해 여러 명의 신이 나타나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따뜻한 정신의 철학자들

신화의 주인공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자연을 자신과 동떨어진 별개의 사물로 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욕망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연의 혜택, 축복 속에서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지켜나간 것이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따뜻한 정신의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최대 행복은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공자나 맹자는 인간이 자연과 대등한 존재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자연을 도덕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천지자연의 운행은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며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준칙과 통한다. 뿐만 아니라 천지자연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공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도덕을 부여해 준 존재라고 생각했고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통해 천지자연과 자신의 기가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연은 도덕의 근거이며 인간 생명의 근거로 간주되었다.

송대에 일어난 주자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우위에 놓지만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때 천지와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동양적 세계관의 특징은 자연과의 대립을 지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을 자연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한다든지 자연에 비해 왜소한 존재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동양의 지식인들이 추구한 최

고의 목표는 천지와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물론 인간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학파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도덕성을 밝힘으로써 천지자연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유가의 철학자들이었다면 인간의 인위적인 욕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무위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도가의 철학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연을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자연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친화적인 입장에 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순자처럼 자연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본 철학자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동양사상의 주류라고 할 수는 없다.

‘천지는 만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天地以生物爲心)고 했던 역학적(易學的) 세계관에서도 이 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과 다를 것이 없다.

송대의 철학자로 주자학의 선구 역할을 했던 장재는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이다. 우리 인간은 아득한 존재로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사해의 모든 백성들은 나의 형제이고 지상의 온갖 조수초목(鳥獸草木)들은 나와 함께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반자이다.....

이처럼 그는 인간을 천지자연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 자연의 최대 수혜자는 인간이라고 본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단절적인 ‘나와 너’가 아니라 천지자연의 기를 나누어 가진 형제로 파악한다. 심지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흔한 사물들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고대 사상의 대전제는 하늘과 사람, 곧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물론 이것은 하늘, 또는 자연을 선부르게 인격화시켜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것도 실상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추구하는 자연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다.

1. 생명을 위해 열린 공간 - 건(乾), 곤(坤)

건(乾) ≡≡≡

괘사(卦辭): 乾은 元, 亨, 利, 貞하니라

건(乾)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

단전(象傳):

象曰 大哉라 乾元이여 萬物이 資始하나니 乃統天이로다

〈단전(象傳)〉에 말하였다. “위대하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의뢰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도다.

雲行雨施하여 品物이 流形하나니라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

大明始終하면 六位時成하나니 時乘六龍하여 以御天하나니라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면 육위(六位)가 때로 이루어지나니, 때로 여섯 용(龍)을 타고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乾道變化에 各正性命하나니 保合大和하여 乃利貞하니라

건도(乾道)가 변(變)하여 화(化)함에 각각 성명(性命)을 바루니, 대화(大和)를 보합(保合)하여 이에 이롭고 정(貞)하다.

首出庶物에 萬國이 咸寧하나니라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

상전(象傳):

象曰 天行이 健하니 君子이하어 自彊不息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潛龍勿用은 陽在下也요

잠겨있는 용(龍)은 쓰지 말라는 것은 양(陽)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見龍在田은 德施普也요

나타난 용(龍)이 밭에 있다는 것은 덕(德)을 널리 베풀어요

終日乾乾은 反復道也요

종일토록 힘쓰고 힘쓴다는 것은 반복하기를 도(道)로써 함이요

或躍在淵은 進无咎也요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다는 것은 나아감이 허물이 없다는 것이요

飛龍在天은 大人造也요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대인(大人)의 일이요

亢龍有悔는 盈不可久也라

끝까지 올라간 용(龍)이니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가득함은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효사(爻辭):

1.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

초구(初九)는 못에 잠겨 있는 용(龍)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2. 九二는 見(현)龍在田이니 利見大人이니라

구이(九二)는 나타난 용(龍)이 밭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

3. 九三은 君子終日乾乾하여 夕惕若하면 厲하나 无咎리라

구삼(九三)은 군자(君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써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으리라.

4. 九四는 或躍在淵하면 无咎리라

구사(九四)는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5. 九五는 飛龍在天이니 利見大人이니라

구오(九五)는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

6. 上九는 亢龍이니 有悔리라

상구(上九)는 끝까지 올라간 용(龍)이니, 뉘우침이 있으리라.

곤(坤) ☷☷☷

괘사(卦辭): 坤은 元하고 亨하고 利하고 牝馬之貞이니 君子의 有攸往이니라 先하면 迷하고 後하면 得하리니 主利하니라 西南은 得朋이요 東北은 喪朋이니 安貞하여 吉하니라

곤(坤)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암말의 정(貞)함이니 군자(君子)의 갈 바를 돕는다. 먼저 하면 혼미하고 뒤에 하면 얻으리니, 이로움을 주장한다. 서쪽과 남쪽은 벗을 얻고 동쪽과 북쪽은 벗을 잃을 것이니, 안정(安貞)하여 길(吉)하다.

彖曰 至哉라 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나니 乃順承天이니 坤厚載物이 德合无疆하며 含弘光大하여 品物이 咸亨하나니라 先하면 迷하여 失道하고 後하면 順하여 得常하리니 西南得朋은 乃與類行이요 東北喪朋은 乃終有慶하리니 安貞之吉이 應地无疆이니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지극하다, 곤(坤)의 원(元)이여! 만물이 의뢰하여 생겨나니, 이에 순히 하늘을 받드니, 곤(坤)의 두터움이 물건을 실음은 덕(德)이 무강(无疆)[한이 없음]에 합하며 포용하고 너그러우며 빛나고 위대하여 만물이 다 형통하다. 먼저 하면 혼미하여 도

(道)를 잃고 뒤에 하면 순하여 몇몇함을 얻으리니, 서남(西南)은 벼를 얻는다는 것은 동류(同類)와 함께 행함이요, 동북(東北)은 벼를 잃는다는 것은 마침내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안정(安貞)의 길함이 땅의 무강(無疆)에 응한다.”

상전(象傳): 象曰 地勢坤이니 君子이하어 厚德으로 載物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지세(地勢)가 곧(坤)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후(厚)한 덕(德)으로 물건을 실어준다.”

효사(爻辭):

1. 初六은 履霜하면 堅冰至하나니라

초육(初六)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象曰 履霜堅冰은 陰始凝也니 馴致其道하여 至堅冰也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陰)이 처음 응결한 것이니, 그 도(道)를 순치(馴致)[점차 이룸]하여 단단한 얼음에 이른 것이다.”

2. 六二는 直方大라 不習이라도 无不利하나니라

육이(六二)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象曰 六二之動이 直以方也니 不習无不利는 地道光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이(六二)의 동함이 곧고 방정하니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지도(地道)가 빛남이다.”

3. 六三은 舍章可貞이니 或從王事하여 无成有終이니라

육삼(六三)은 아름다움을 머금음이 정(貞)할 수 있으니, 혹 왕사(王事)에 종사하여 이롭지 않고 종말[끝마침]을 두어야 한다.

象曰 舍章可貞이나 以時發也요 或從王事는 知(智)光大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아름다움을 머금어 정(貞)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발할 것이요, 혹 왕(王)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지혜가 밝고 큰 것이다.”

4. 六四는 括囊이면 无咎며 无譽리라

육사(六四)는 주머니끈[주머니의 주둥이]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으며 칭찬도 없으리라.

象曰 括囊无咎는 慎不害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주머니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삼가면 해롭지 않은 것이다.”

5. 六五는 黃裳이면 元吉이리라

육오(六五)는 황색(黃色) 치마처럼 하면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리라.

象曰 黃裳元吉은 文在中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 ‘황상원길(黃裳元吉)’ 은 문(文)이 중(中)에 있는 것이다.”

上六은 龍戰于野하니 其血이 玄黃이로다

상육(上六)은 용(龍)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象曰 龍戰于野는 其道窮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용이 들에서 싸우는 것은 그 도(道)가 궁극한 것이다.”

2. 탄생과 성장 - 둔(屯), 몽(蒙)

둔(屯) ☶☳☵

둔괘(屯卦)는 〈서괘전(序卦傳)〉에 “천지(天地)가 있는 뒤에 만물(萬物)이 생겨나니, 천지(天地)의 사이에 꼭차 있는 것은 만물(萬物)이다. 그러므로 둔괘(屯卦)로 받았으니, 둔(屯)은 가득함이요 둔(屯)은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하였다. 만물이 처음 나와 꼭 막혀서 통창(通暢)하지 못하므로 천지(天地)의 사이에 꼭차 막힘이 되었으니, 통창(通暢)하고 무성함에 이르면 막힌 뜻이 없어진다.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내니, 둔(屯)은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건(乾)·곤괘(坤卦)의 뒤를 이었다. 두 상(象)으로써 말하면 구름과 우레가 일어난 음(陰)과 양(陽)이 처음 사귀는 것이요, 두 체(體)로써 말하면 진(震)이 처음 아래에서 사귀고 감(坎)이 처음 가운데에서 사귀었으니, 음(陰)과 양(陽)이 서로 사귀어야 구름과 우레를 이룬다. 음(陰)과 양(陽)이 처음 사귀어서 구름과 우레가 서로 응하였으나택(澤)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둔(屯)이 된 것이니, 만일 이미 택(澤)을 이루었으면 해괘(解卦)가 된다. 또 험한 가운데에서 동(動)하니 또한 둔(屯)의 뜻이다. 음(陰)과 양(陽)이 사귀지 않으면 비괘(否卦)가 되고, 처음 사귀되 통창(通暢)하지 않으면 둔괘(屯卦)가 되니, 시대에 있어서는 천하가 고난에 허덕여 형통(亨通)하지 못하는 때이다.

괘사(卦辭): 屯은 元亨하고 利貞하니 勿用有攸往이요 利建侯하니라

둔(屯)은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로우니, 갈 바를 두지 말고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단전(彖傳): 象曰 屯은 剛柔始交而難生하며 動乎險中하니 大亨貞은 雷雨之動이 滿盈일새라 天造草昧에는 宜建侯요 而不寧이니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둔(屯)은 강(剛)과 유(柔)가 처음 사귀어 어려움이 생겼으며, 험한 가운데 동하니,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은 우레와 비의 동(動)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천조(天造)[천운(天運)]가 어지럽고 어두울 때에는 마땅히 후(侯)[제후]를 세우고 편안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상전(象傳): 象曰 雲雷屯이니 君子이하어 經綸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름과 우레가 둔(屯)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경륜(經綸)한다.”

효사(爻辭):

1. 初九는 磐桓이니 利居貞하며 利建侯하니라

초구(初九)는 반환(磐桓)[주저]함이니, 정(貞)에 거함이 이로우며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象曰 雖磐桓하나 志行正也며 以貴下賤하니 大得民也로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비록 반환(磐桓)하나 뜻은 정도(正道)를 행하려 하며,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 크게 민심을 얻도다.”

2. 六二는 屯如遭如하며 乘馬班如하니 匪寇면 婚媾리니 女子貞하여 不字라가 十年에야 乃字로다

육이(六二)는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적이 아니면 혼구(婚媾)[배우자]리니, 여자가 정도(貞道)를 지켜서 생육(生育)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육(生育)을 하도다.

象曰 六二之難은 乘剛也요 十年乃字는 反常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이(六二)의 어려움은 강(剛)을 타고 있기 때문이요, 10년이 되어서야 생육함은 상도(常道)로 돌아온 것이다.”

3. 六三是 即鹿无虞라 惟入于林中이니 君子幾하여 不如舍니 往하면 吝하리라

육삼(六三)은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어 길을 잃어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니, 군자(君子)는 기미를 알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象曰 即鹿无虞는 以從禽也요 君子舍之는 往하면 吝窮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음은 짐승을 탐내어 쫓았기 때문이고, 군자(君子)가 버림은 가면 부끄럽고 곤궁함을 당하기 때문이다.”

4. 六四是 乘馬班如니 求婚媾어든 往하면 吉하여 无不利하리라

육사(六四)는 말을 타되 나아가지 않음이니, 혼구(婚媾)를 구하거든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象曰 求而往은 明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하거든 감은 현명(賢明)한 것이다.”

5. 九五는 屯其膏니 小는 貞이면 吉하고 大는 貞이라도 凶하리라

육오(六五)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작은 일에는 정하면 길하고 큰 일에는 정하여도 흉하리라.

象曰 屯其膏는 施未光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둔기고(屯其膏)’는 베풀이 광대하지 못한 것이다.”

6. 上六是 乘馬班如하여 泣血漣如로다

상육(上六)은 말을 타고서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

象曰 泣血漣如어니 何可長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피눈물을 줄줄 흘리니 어찌 장구히 할 수 있겠는가.”

몽(蒙) ☶☵

몽괘(蒙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둔(屯)은 가득함이고, 둔(屯)은 물건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물건이 나면 반드시 어리다. 그러므로 몽괘(蒙卦)로 받았으니, 몽(蒙)은 어림이니, 물건이 어린 것이다.” 하였다. 둔(屯)은 물건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물건이 처음 나와 어려서 몽매하여 개발되지 못했으니, 몽괘(蒙卦)가 이 때문에 둔괘(屯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간(艮)이 위에 있고 감(坎)이 아래에 있으니, 간(艮)은 산(山)이 되고 그침이 되며, 감(坎)은 물이 되고 험함이 된다. 산(山) 아래에 험함이 있으니, 험함을 만나 그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몽(蒙)의 상(象)이다. 물은 반드시 가는 물건이나 처음 나와서 갈 바가 없으므로 몽(蒙)이 된 것이니, 나아감에 미치면 형통하는 뜻이 된다.

괘사(卦辭): 蒙은 亨하니 匪我求童蒙이라 童蒙求我니 初筮어든 告(곡)하고 再三이면 瀆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

몽(蒙)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이니, 처음 묻거든 고해 주고 두 번 세 번 물으면 번독하다.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을 것이니, 정(貞)함이 이롭다.

단전(象傳): 象曰 蒙은 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요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요 初筮告은 以剛中也요 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 니 蒙以養正이 聖功也라

〈단전(象傳)〉에 말하였다. “몽(蒙)은 산(山)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하고 그친 것이 몽(蒙)이다. ‘몽형(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함이니, 때에 맞고 중(中)을 얻었기 때문이요,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은 뜻이 응(應)함이고,

처음 묻거든 고해줌은 강중(剛中)하기 때문이요, 재삼(再三) 물으면 번독함이니,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음은 몽(蒙)을 번독하게 하기 때문이니,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이다.”

상전(象傳): 象曰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이하여 果行하며 育德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山) 아래에서 샘물이 나옴이 몽(蒙)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德)을 기른다.”

효사(爻辭):

1. 初六은 發蒙하되 利用刑人하여 用說(脫)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초육(初六)은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象曰 利用刑人是 以正法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법(法)을 바로잡는 것이다.”

2. 九二는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克家로다

구이(九二)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

象曰 子克家是 剛柔接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 일을 잘 다스림은 강유(剛柔)가 접하기 때문이다.”

3. 六三은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육삼(六三)은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금부(金夫)[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象曰 勿用取女는 行不順(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실을 삼가지 않기 때문이다.”

4. 六四는 困蒙이니 吝하도다

육사(六四)는 몽(蒙)에 곤궁함이니 부끄럽도다.

象曰 困蒙之吝은 獨遠實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곤몽(困蒙)의 부끄러움은 홀로 실(實)[양(陽)]과 멀기 때문이다.”

5. 六五는 童蒙이니 吉하니라

육오(六五)는 동몽(童蒙)이니, 길하다.

象曰 童蒙之吉은 順以巽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동몽(童蒙)의 길함은 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6.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요 利禦寇하니라

상구(上九)는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

象曰 利用禦寇는 上下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침략을 막음이 이로움은 상하(上下)가 순하기 때문이다.”